

아라



언니 나 궁금한 거 있어

요즘 AI 관련 주식 알아보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해

주아



무슨 말?

오후 8:12

아라



금 캐러 가지 말고 곡괭이 파는 회사를 사래

골드러시 때도 금 캔 사람은 다 망하고 삽 판 사람만 돈 벌었다고

주아



ㅋㅋㅋㅋ 그거 이번 강의가 통째로 뜯어본 얘기야

아라



오 진짜?

주아



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대

아라



어디가 틀렸는데

오후 8:14



주아

사무엘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

1849년 골드러시 때 '금 캐는 것보다 곡괭이 파는 게 낫겠다' 하고 삽이랑 곡괭이를 팔았어

그래서 캘리포니아 1호 백만장자가 됐어

아라

봐 맞잖아



주아

근데 1887년에 그 사람 뭐 하고 있었게

오후 8:16

아라

음... 더 큰 사업?



주아

애리조나에서 연필 팔고 있었어

아라

엥???



주아

1889년에 무일푼으로 죽었고 시신도 1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갔대

아라

헐 진짜?



백만장자였는데 어쩌다가

 TIME GUEST

 사무엘 브레넌

1849 → 1889

"나는 곡괭이를 팔아 캘리포니아 1호 백만장자가 되었다.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을 비웃으면서. 그런데 나는 골드러시가 끝난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. 38년 뒤 나는 연필을 팔고 있었고, 무일푼으로 죽었다. 곡괭이를 산 자만 망한 게 아니다."

아라



와 이걸 좀 충격인데

주아



장사가 제일 잘될 때 그 이후를 준비 안 했거든

그러다 돈 다 날린 거야

아라



그럼 곡괭이 판 사람은 다 그렇게 됐어?

주아



아니 그것도 아니야. 정반대 사람이 있어

리바이 스트라우스

아라



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

주아



1853년에 24살로 샌프란시스코에 왔는데 골드러시보다 4년이나 늦었어

그리고 곡괭이도 안 팔았어. 그냥 도매상이었어

아라



근데 왜 유명해

주아



어떤 사람이 청바지 만들자고 찾아왔는데 특허 낼 돈이 없었대

그 돈을 스트라우스가 내줬어. 그래서 사업 주인이 된 거야

아라



아 리바이스!!

주아



○○ 그 리바이스

1

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다음이야

골드러시 끝나서 광부가 줄어드니까 카우보이한테 팔았어

철도 붐 오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잘 안 해지는 청바지에 완전 빠졌고

그러다 미국 작업복이 됐다가, 평상복이 됐다가, 전 세계로 갔어

아라



고객을 계속 갈아탄 거네

주아



정확해. 그래서 1853년부터 지금까지 173년째 살아있어

오후 8:27

아라



173년...

주아



강의 표현이 좋아. 광부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만들었다고

아라



오 멋있다

주아



차이는 곡괭이나 청바지냐가 아니었어. 호황 끝난 다음을 봤느냐였어

아라



근데 언니 아까 그 말 있잖아

삽 판 사람만 돈 벌었다는 거. 그거 누가 한 말이야?

주아



보통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알려져 있지

아라



어 맞아 그렇게 들었어

주아



가짜야

아라



응



주아

1982년에 광고 카피라이터가 만든 말이라

오후 8:33

아라



헐 왜 트웨인 이름을 붙여



주아

곡괭이 회사에 투자하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'내가 만든 말이야' 하면 안 먹히잖아

미국에선 그럴듯한 말 나오면 일단 마크 트웨인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대

'은행은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 비 오면 뺏어간다' 이것도 가짜야

아라



아 그것도 들어봤는데 ㅋㅋㅋ



주아

근데 더 웃긴 건 트웨인 본인 행적이야

1861년에 광산 갔는데 2년이나 늦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어

아라



ㅋㅋㅋㅋㅋ



주아

그러다 책이 대박 나서 돈을 좀 벌었는데

1880년대에 그 시대 최첨단 기업에 지금 돈으로 100억쯤 투자했어. 조판기 만드는 회사

지금으로 치면 AI 스타트업에 넣은 셈이지

아라

결과는?



주아

경쟁사한테 져서 1894년에 그 회사 파산. 돈 다 날렸어

오후 8:39

아라

두 번 다 실패했네



주아

두 번 늦었고 두 번 다 옥석을 못 골랐어

아라

그런 사람이 '삽 판 사람만 돈 벌었다'고 말했을 리가 없네



주아

그치? 강의도 딱 그 얘기를 해

아라

그럼 진짜로 돈 번 사람은 누구야



오후 8:43



주아

카네기

아라



아 그 카네기홀?

주아



○○ 그 사람. 근데 번 방식이 좀 무서워

1873년 4월에 강철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6개월 뒤에
공황이 터졌어

철도 버블이 꺼진 거야. 4년 장기불황 시작

오후 8:45

아라



타이밍 최악이네

주아



근데 다들 도망칠 때 이 사람은 공격했어

첫째, 망한 동업자들 지분을 헐값에 쓸어담았어

둘째, 강철 가격을 반값으로 떨어뜨려서 경쟁 회사들을 다
죽였어

셋째, 코크스랑 광석이랑 철도랑 선박까지 다 사들여서
완전히 한 줄로 엮었어

오후 8:47

아라



우와 좀 잔인한데

주아



실제로 '피도 눈물도 없다'고 욕 많이 먹었대. 나중에
기부를 엄청 한 게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

아라



아 그래서 카네기홀이구나

주아



1901년에 회사 팔았는데 지금 돈으로 14조쯤 됐어

아라



근데 왜 하필 불황 때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거야?

오후 8:51

주아



그게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계산이야

이미 10배 오른 걸 사면 거기서 더 올라봐야 2배 정도야

아라



음 그렇겠네

주아



근데 10배 갔다가 10분의 1로 떨어지지잖아? 그다음에 오는 두 번째 파도는 보통 30배, 40배래

오후 8:53

아라



차이가 너무 큰데

주아



그래서 폭락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

카네기는 양쪽 다 잡았어. 호황도 따라가려고 현금 절반은 넣어두고, 나머지 절반은 폭락 때 몰아넣었대

아라



그건 좀 대단하다

주아



자 여기서 시간을 152년 건너뛰다

오후 8:58

아라



152년? ㅋㅋ

주아



1990년대 후반. 그때 다들 뭐라고 했게

아라



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?

주아



정확해. 그리고 그 시대의 곡괭이가 시스코였어. 인터넷 라우터 만드는 회사

논리가 완벽했어. 인터넷이 사라지겠어? 그럼 라우터 수요가 줄겠어?

그러니까 언제 사든 지금이 제일 싸다

아라



어? 그거 내 친구가 한 말인데



주아

ㅋㅋㅋㅋㅋ 그니까

숫자를 보면 진짜 미쳤어

5년 동안 매출이 2조에서 22조로 10배 늘었고 주가는 2달러에서 80달러. 3,800% 올랐어

아라

3,800%??



주아

PER이 201배였는데도 아무도 비싸다고 안 했어

아라

왜?



주아

5년에 10배씩 늘었으니까 5년 뒤엔 220조 되겠지 하고 그걸 미리 주가에 넣은 거지

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세계 시총 1위까지 갔어

아라

그리고 버블 터졌지?

오후 9:08



주아

○○ 80달러에서 10달러. -87%야

아라

8분의 1... 그럼 라우터도 안 팔린 거야?





주아

아니

아라

응?



주아

매출은 오히려 4배 늘었어

오후 9:10

아라

엥 그게 무슨 말이야



주아

2000년에 22조였던 매출이 2025년에 80조가 됐어.
회사는 계속 잘 굴러갔어

아라

근데 주가는 8분의 1?



주아

응. 그럼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온 게 언제게

오후 9:12

아라

음 5년? 10년?



시스코가 2000년 고점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

25년 9개월

2000년 3월 27일 → 2025년 12월 10일. 그동안 회사 매출은 4배 늘었다

아라



25년???

나 태어나기 전인데

주아



ㅋㅋㅋ 그니까

회사는 살았어. 주주만 25년을 잃은 거야

아라



왜 그렇게 오래 걸려

주아



25년 치 기대가 2000년 주가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거든

회사가 잘하냐 못하냐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야

오후 9:16

아라



아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구나

주아



근데 시스코는 그나마 돌아오기라도 했어

오후 9:20

아라



다른 데는?

주아



루슨트는 99% 빠지고 다른 회사에 흡수됐고, 노르텔은 95% 빠지고 2009년에 파산했어

아라



99%면 그냥 없어진 거잖아

주아



둘 다 첨단 기업이었어. 광케이블이랑 통신 장비. 구식이라 망한 게 아니야

오후 9:22

아라



그럼 왜 망했어

주아



곡괭이만 만들었거든

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58% 빠졌다가 16년 뒤에 부활했고, 아마존은 90% 빠졌는데 2001년부터 880배 올랐어

아라



880배???

주아



○○ 상장 초기부터 보면 3,000배고

오후 9:24

아라



차이가 뭔데 진짜



주아

딱 한 칸이야

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만 팔다가 오피스로 넘어갔어.
곡괭이에서 금광 쪽으로 발을 걸친 거지

아마존은 반대야. 책 파는 광부로 시작해서 AWS라는
곡괭이를 만들었어

오후 9:26

아라



양쪽에 다 걸친 애들이 살아남았네



주아

강의 문장이 딱 그래. 살아남은 자는 모두 결국 광부에도
들어갔다

아라



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거야?

오후 9:31



주아

아니 250년 동안 다섯 번 똑같았어

1845년 영국 철도, 1849년 골드러시, 1873년 미국 철도,
1929년 라디오랑 전기, 2000년 닷컴

아라



매번 터졌어?



주아

매번 '이번엔 버블 아니다' 했고 매번 터졌어

골드러시 때 30만 명이 빈손으로 돌아갔고, 금 캐서 부자 된 사람은 3% 정도였대

아라



3%...



주아

영국 철도 때는 회사 3분의 1이 파산했고 사기도 엄청 많았어. 영국엔 철도망만 남았대

아라



사람은 안 남고 인프라만 남았네



주아

오 그 표현 좋다. 그게 이 강의 포인트 중 하나야

근데 1929년 얘기가 제일 선명해

아라



원데



주아

RCA라고 그 시대 최고 첨단 기업이 있었어. 지금으로 치면 제일 뜨거운 AI 기업

주가가 98% 빠졌어. 근데 GE는 살아남았어

오후 9:37

아라



둘 다 사업 넓힌 거 아니야?



주아

맞아 둘 다 넓혔어. 근데 GE는 100년 동안 넓히면서
들어간 분야마다 1등을 했어

RCA는 옆으로 넓히기만 하고 어디서도 1등을 못 했어

아라



아



주아

그래서 강의가 뽑은 원칙이 이거야. 확장이 아니라 1등이다

오후 9:39

아라



넓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은 자리마다 1등이었냐



주아

○○ 정확해

아라



근데 왜 매번 터지는 거야?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

오후 9:44



주아

강의가 이유를 세 개 들어

첫째, 수요는 산수로 느는데 공급은 광기로 늘어

아라



무슨 뜻이야

 주아

AI 쓰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데이터센터는 그 속도로 못 지어

주민들이 반대하고, 송전탑 세우는 데 시간 걸리고, 발전소 지을 전기 기술자도 모자라

아라

 아 물리적으로 못 따라가는구나 주아

근데 돈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몰려. 올해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1,000조가 넘어

아라

 1,000조... 주아

둘째는 승자독식이야. 표준이 정해지면 99%가 죽어

닷컴 때 회사가 1만 개 넘었는데 살아남은 건 다섯이야

아라

 1만 개 중에 다섯?

 주아

○○ 유통은 아마존만, 광고는 구글이랑 메타 정도

셋째는 호황이 사실 미래 수요를 미리 당겨 쓴 거라는 거야

시스코 매출이 5년간 850% 늘었는데 2001년에 겨우 25% 줄었어. 근데 주가는 8분의 1이 났지

아라 

25% 줄었는데 주가는 87% 빠졌다고?

 주아

기대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야

아라 

그럼 터지는 게 사고가 아니라 정해진 거네

오후 9:55

 주아

맞아. 오히려 터져야 다음이 온대

아라 

터져야 온다고?

 주아

계산해보면 간단해. 금광에서 100억 버는데 곡괭이 값이 300억이면 그게 말이 돼?

아라 

안 되지



주아

그러니까 그 구조는 반드시 깨져야 해

곡괭이가 10억이 되고 금광이 100억이 돼야 그때부터 진짜 호황이 시작되는 거야

아라



오



주아

그리고 그때는 곡괭이 회사도 1~2개 팔던 걸 100개, 1,000개씩 팔면서 오히려 더 벌어

아라



결국 다 같이 잘되는 거네. 한번 터지고 나서



주아

그리고 인프라는 남아. 철도 버블은 철도망을, IT 버블은 IT 인프라를 남겼어

다음 혁명까지 걸린 시간이 철도는 3년, 닷컴은 4~5년, 대공황은 15년 넘게 걸렸대

아라



그럼 살아남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야

오후 10:04



주아

세 개래

하나는 확장. 스트라우스랑 아마존

근데 아무 데나 넓히면 안 돼. 관계 있는 쪽으로 가야 해

오후 10:06

아라



브레넨은 엉뚱한 데로 갔구나



주아

응 그래서 망했어

둘은 독점. 카네기, 마이크로소프트, TSMC 같은 애들

셋은 호황 이후를 보는 눈. 이건 살아남은 애들 전부의 공통점이야

오후 10:08

아라



셋 다 있어야 돼?



주아

셋 다거나, 하나라도 진짜로 가진 쪽이 살았대

아라



자 그럼 지금 얘기 해줘

오후 10:12



주아

ㅋㅋㅋ 기다렸지

지금 AI 곡괭이는 엔비디아 같은 GPU 회사, 클라우드,
그리고 데이터센터랑 전력이야

그리고 'AI 곡괭이 사면 안전하다'는 말이 돌아다녀

아라



어 내 친구가 한 말...



주아

강의 반박이 딱 한 줄이야. 그 말을 우리는 25년 전에도
들었다

오후 10:14

아라



아 시스코 때



주아

○○ 강사님이 계속 옛날 IT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야

그런 원칙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려고

아라



근데 엔비디아는 그거 모르나?



주아

오 그게 재밌어. 젠슨 황은 이미 알고 있대

자율주행도 하고, 로봇도 하고, 회사도 계속 사들이고,
칩부터 운영체제, 응용까지 다 하겠다고 하고 있어

굵직한 것만 6개, 자잘한 것까지 세면 10개 넘어

아라



곡괭이만 안 하겠다는 거네



주아

강의 표현이 세. 이미 광부가 됐다,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에

오후 10:19

아라



오 그럼 시스코 길은 아니네?



주아

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나와

오후 10:23

아라



함정?



주아

광부가 되려면 고객이랑 싸워야 되거든

아라



아



주아

TSMC 알지? 애네는 남의 칩만 만들어주고 자기 칩은 안 만들어

모토가 '당신 설계도로 당신이랑 싸우려고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'야

아라



그럼 말기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다



주아

그래서 점유율이 60%야

삼성은 반대야. 파운드리도 하는데 자기 칩도 만들거든

오후 10:27

아라



그럼 말기는 쪽에서 불안하겠네



주아

퀄컴 입장에선 '삼성도 AP 만드는데 우리 설계 넘겨도 되나?' 싶은 거지

점유율이 7%야

아라



60 대 7... 잘하는 게 오히려 문제였네



주아

그리고 엔비디아는 삼성보다 훨씬 넓게 벌이고 있어

머스크는 '너희가 자율주행 하면 우리는 칩 독립한다'고 했고

구글이랑 아마존은 자기 칩 만들고, 메타는 아마존이랑 구글 칩 쪽으로 갔어

아라



다들 등을 돌렸네



주아

제일 상징적인 게 구글이랑 메타가 손잡은 거야

오후 10:32

아라



개네 경쟁사 아니야? 둘 다 광고로 돈 벌잖아



주아

맞아. 근데 더 큰 상대랑 싸우려니까 손을 잡은 거지

아라



와 적의 적은 친구네



주아

강의 표현으로는 전선이 너무 많아졌대

아라



그럼 나는 뭘 보면 되는 거야

오후 10:37



주아

곡괭이 회사가 사는 길이 세 개래

TSMC형은 욕심을 줄이는 거야. 한 분야만 확실히 잡고
고객이랑 안 싸워

애플형은 다 하는 건데, 대신 들어간 분야마다 1~2등을
해야 돼

리바이스형은 전 분야로 넓히되 고객이랑은 경쟁 안 하는
거고

아라



셋 중에 하나면 사는 거야?



주아

응. 없으면 망하거나 시스코처럼 25년

아라



엔비디아는 어느 쪽인 것 같대?



주아

강사님은 리바이스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

넓히면서 고객이랑 계속 부딪치면 GPU 독점 자체가
흔들리니까

남은 건 둘이래. CUDA 생태계로 꼭 잡거나, 애플처럼 다
만들거나

아라



근데 이거 엔비디아만의 얘기는 아니겠네

주아



맞아. 메모리도 클라우드도 다 같은 질문 앞에 있대

고객이랑 경쟁하는지 / 독점인지 / 다른 데로 넓히는지

아라



오 이거 세 개만 보면 되는 거네

주아



아라
이거 세 개만 보면 되는 거네

응. 종목이 아니라 질문을 준 거야

아라



근데 언니 솔직히 물어볼게

그래서 지금 뭘 사면 돼?

주아



ㅋㅋㅋㅋ 그건 강의도 지금은 말 안 해

아라



안 알려줘?

주아



채점표를 8강에서 만든대. 5점 만점으로

근데 급하지 않은 이유도 같이 말했어

아라

원데



주아



그 채점표는 버블이 꺼졌을 때 쓰는 거래

아라

아



주아



지금부터 3년쯤 연습해두면, 터지고 나서 누가 아마존이 되고 누가 시스코가 될지 가릴 수 있다고

오후 10:51

아라

2001년에 그거 가릴 수 있었던 사람만 돈 벌었다는 거지



주아



정확해.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라고 봐

아라

오늘 얘기 한 줄로 하면 뭐야



오후 10:55

주아



곡괭이만 살아남는다는 건 혁명 초반마다 도는 헛소문이고

광부도 곡괭이도 거의 다 망해

살아남는 건 호황 이후를 본 쪽뿐이야

아라

브레넌이랑 스트라우스 차이가 딱 그거였네





주아

응 그래서 강의가 그 두 사람으로 시작한 거야

오후 10:57

아라



나 오늘 좀 정신 차린 것 같아

유행 따라가려고 했는데



주아

강의도 그 얘기로 끝나. 유행 말고 10년, 30년으로 보라고

아라



ㅎㅎ 알겠어

다음 강의도 풀어줘



주아

당연하지. 다음엔 광부 얘기래. 강사님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

올라오면 또 풀어줄게